박지성 "히딩크·퍼거슨 보고 '난 지도자는 무리' 라고 생각"

행정가로 미래 설계 "한국과 아시아 축구 발전 위해 노력할 것"

한국인 첫 성화봉송주자이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박지성이 24일(현지시각)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신전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국 축구의 아이콘 박지성(36)이 행정가로서 한국과 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지성은 25일 일본 야후재팬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한국과 아시아 축구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 때문에 행정가의 길을 선택했다. 훌륭한 축구 행정가로서 아시아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4년 그라운드를 떠난 박지성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마스터 코스 과정에 입학해 올해 7월 모든 과정을 마쳤다.

그는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면서 꿈을 위해선 열정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배웠다"며 "공부를 조금만 하면 축구 행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가벼운 마음도 있었지만 공부를 통해 많이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세계 축구는 유럽이 선도하고 있다. 유럽에서 배운 것을 아시아에 활용하고 싶다. 구단, 국가 협회, 국제단체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행정가로서 길을 가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지도자에 대한 꿈은 없을까. 박지성은 2002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썼던 거스 히딩크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함께 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언급하며 "자신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전술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호통을 쳐 선수들의 자존심을 자극도 해야 한다"며 "나는 그런 점에서 히딩크 감독과 퍼거슨 감독처럼 할 수 없다. 가까이서 보면서 나에게 지도자는 무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성은 "축구선수 출신으로 지도자, 해설가, 행정가 등 3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도자는 생각지 않았고 해설가는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행정가의 길을 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배운 지식을 활용할 노하우가 없다. 여전히 배울 게 많다. 어떤 방식으로 행정가의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보탰다.

뉴시스

전북 로페즈, K리그 클래식 35라운드 MVP 선정

지난 22일 강원FC전 1골 1도움 기록

전북 현대를 우승 길목으로 인도한 로페즈가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5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2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FC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0 완승을 이끈 로페즈를 35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낸 전북은 2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4점차를 유지하며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다.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의 라운드 MVP선정은 K리그와 스포츠투아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투아이 지수(득점, 슈팅, 패스, 볼 경합,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 등 주요 경기 행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 산출한 지수)와 연맹 경기평가회의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로페즈는 전체 4번의 슈팅 중 3개를 유효슈팅을 만들어내는 공격력과 3번의 키패스를 성공시키며 투아이 지수 총점 372점을 기록했다.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송승민(광주)-마그노(제주)가 이름을 올렸다. 로페즈-이재성(전북)-룰리냐(포항)-이승기(전북) 윤일록(서울)이 미드필더로 뽑혔고, 완델손(포항)-김정현(광주)-박진포(제주)가 스리백을 형성했다. 최고 골키퍼의 영예는 김호준(제주)에게 돌아갔다.

챌린지 35라운드 MVP는 경남FC 정현철이 차지했다.

뉴시스

金내려놓고 도전자 자처한 박승희

스피드스케이팅 전향 후 첫 올림픽 출전 도전

2014소치동계올림픽은 박승희(25·스포츠토토)를 위한 무대나 다름없었다.

쇼트트랙 여자 1000m와 3000m 계주에서 2관왕에 올랐고, 여자 500m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며 1998년 나가노 대회 이후 16년 만에 이 종목에서 입상한 한국 선수가 됐다.한국 선수단이 따낸 8개의 메달 중 3개가 그의 질주에서 만들어졌다.

3년이 지난 현재, 박승희는 다시 한 번 올림픽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올림픽 챔프의 훈장을 안긴 쇼트트랙이 아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나선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만난 박승희는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하고 평창 대회에 나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했을 뿐인데 올림픽에 나갈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박승희가 스피드스케이팅 전향을 선언한 것은 지난 2014년 쇼트트랙에서 전향한 선수들 대다수가 장거리를 택하지만 박승희는 단거리에 도전장을 던졌다.

쇼트트랙 여왕은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전향 후 두 달 뒤 출전한 빙속월드컵에서 1000m 14위로 가능성을 입증하더니 이듬해 2월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을 가져갔다.

박승희는 "쇼트트랙은 작전을 잘 짜거나 팀플레이를 잘 하면 메달을 딸 수 있지만 스피드스케이팅은 혼자 해야한다. 1000분의 1초까지 기록으로 싸워야 하는 경기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스피드가 더 힘든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승희에게 평창은 도전과 배움의 장이다.종목을 바꿔서 메달을 따는 좋은 장면도 머릿속에 있지만, 소치 때처럼 반드시 입상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다.

박승희는 "4년차이지만 쇼트트랙을 10년 넘게 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표팀에 뽑혀 올림픽에 갈 기회가 생겼지만 기술적으로 빠르게 습득하진 못했다. 모든 점에서 도전하는 것이라 4년 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승희는 이어 "스피드스케이팅이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지만 내겐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다. 계속 배우고 있다.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웃었다.

박승희는 다음 달 초 시작되는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를 통해 500m와 1000m 평창올림픽 진출권 획득을 노린다.

'마린보이' 박태환 전국체전 4관왕 등극

내일 혼계영 400m서 5관왕 도전

돌아온 '마린보이' 박태환(인천시청)이 팀 동료들과 함께 계영 800m에 이어 400m도 우승하며 대회 4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24일 충북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박선관·유규상·양정두(이상 인천시청)와 출전한 남자일반부 계영 400m 결승에서 3분19초84를 기록, 금빛 물살을 갈랐다.

지난 22일 계영 800m에서 우승할 때와 마찬가지로 박태환의 역영이 돋보였다. 당시 인천 선발팀은 세 번째 영자가 나선 600m 구간까지 서울 등에 뒤처졌다.

하지만 바통을 넘겨받은 박태환은 특유의 스퍼트로 선두를 탈환하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날 400m 경기도 인천은 200m까지 선두를 달리다 300m 구간에서 대구에 0.07초 차로 역전을 허용했다.

6번 레인에서 마지막 영자로 나선 박태환은 곧바로 선두로 치고 나서 팀에 금메달을 안겼다.

끝까지 인천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구가 3분21초00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북은 3분22초00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박태환은 개인 종목인 자유형 200m와 400m에 이어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차지하며 대회 4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4관왕은 체조 윤나래(충북)와 수영 다이빙 김수지(울산), 수영 이호준(서울) 등 4명뿐이다.

박태환은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 혼계영 400m에서 대회 5관왕에 도전한다.

뉴시스

LA다저스, 에이스 커쇼 앞세워 월드시리즈 1차전 선점

7이닝 1실점 11탈삼진…PS 사나이 터너 투런포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LA 다저스가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는데 2시간 28분이면 충분했다.

다저스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2017 월드시리즈(7전4승제) 1차전에서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의 역투에 힘입어 3-1로 승리했다.

개인 통산 첫 월드시리즈 선발 등판 경기를 가진 커쇼가 7이닝 동안 1실점했지만 볼넷 없이 삼진을 11개나 잡아냈다.

커쇼는 이날 1-0으로 앞선 4회 휴스턴 알렉스 브레그먼에게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1, 2, 5 6회를 삼자 범퇴로 막는 등 이렇다 할 위기 없이 마운드를 지켰다.

특히 3회와 4회에는 6개의 아웃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는 등 휴스턴 타선을 압도했다.

커쇼의 호투 속에 다저스 타선도 크리스 테일러가 1회 선두타자로 나와 휴스턴 선발 댈러스 카이클의 초구를 받아쳐 좌월 선제 솔로 홈런을 날렸다.

1-1로 팽팽한 균형을 이룬 6회에는 저스틴 터너가 2사 1루에서 카이클을 상대로 투런포를 뽑아내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터너는 올해 포스트시즌에서만 4번째 홈런이자 14타점을 기록하며 다저스 타자로는 역대 단일 포스트시즌 최다 타점 기록과 타이를 이루며 가을 사나이로 거듭났다.

커쇼가 7회까지 임무를 다하고 내려가자 철벽 불펜 브랜든 모로우와 특급 소방수 캔리 잰슨이 1이닝씩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승리를 지켰다.

휴스턴은 에이스 댈러스 카이클은 6⅔이닝 동안 홈런 두 방 포함 6피안타 1볼넷 3실점하며 퀄리티 스타트 투구를 했지만 홈런포 두 방에 무릎을 꿇었다.

선수협, 이대호 차기 회장설에 "사실 아니다" 공식 부인

이대호(35·롯데 자이언츠)가 현재 공석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에 내정됐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선수협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나온 '이대호 프로야구선수협 회장 맡는다'는 내용의 언론사 단독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누군가를 내정한 사실이 없으며 회장 후보는 다음달 6일 이사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